

값싼 중국산에 밀리고 과잉 생산에 값 반토막

위기의 '보성 녹차'

품질 고급화·재배면적 축소 등 대책마련 시급

◇가격폭락 지속될 듯=보성군 과 보성녹차 가공업체에 따르면 녹차 생엽 1kg당 최고가가 2천500원에서 7월말 현재 1천원 미만으로 뚝 떨어졌다. 1kg당 1만5천원을 웃돌던 견엽도 1만원을 밑돌고 있다.

임모(56·보성군 회천면 영천리)씨는 10ha의 녹차밭에서 연간 20t의 견엽을 생산하고 있다. 이중 판로각질이 없는 고급차는 1t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티백과 음료원재료로 들어가는 하품으로, 수매처를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김도(53·보성읍 봉산리)씨는 "녹차 생엽을 수확해 농협에 수매 의뢰를 했지만, 재고가 넘쳐 수매가격조차 결정하지 못했다"면서 "5년내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소문이 보성지역에 퍼진 상태"라고 말했다.

◇재배면적 2년새 80% 늘어=보성 녹차산업의 위기는 재배면적 증가, 녹차 대응차 범람, 중국산 등

수입급증 등으로 요약된다. 농림부에 따르면 국내 녹차 재배면적은 2004년 2천599ha, 2005년 3천422ha, 2006년 3천698ha 등으로 2년 새 80%나 늘었다. 농가수는 2004년 3천929농가에서 2005년 4천457농가, 2006년 5천246농가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견엽 생산량도 2004년 2천703t, 2005년 3천309t, 2006년 4천72t 등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동안 보성지역 재배면적은 646.3ha→885.3ha→1천111ha로 72% 늘었고, 견엽 생산량도 1천131t→1천246t→1천572t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보성 녹차사업단 관계자는 "과잉생산과 함께 국산 녹차가격의 30~35%에 불과한 중국산 녹차 수입량이 급증하고, '옥수수 수염차' 등 녹차 대응차가 인기를 끌면서 보성녹차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보성농협 녹차작곡사업소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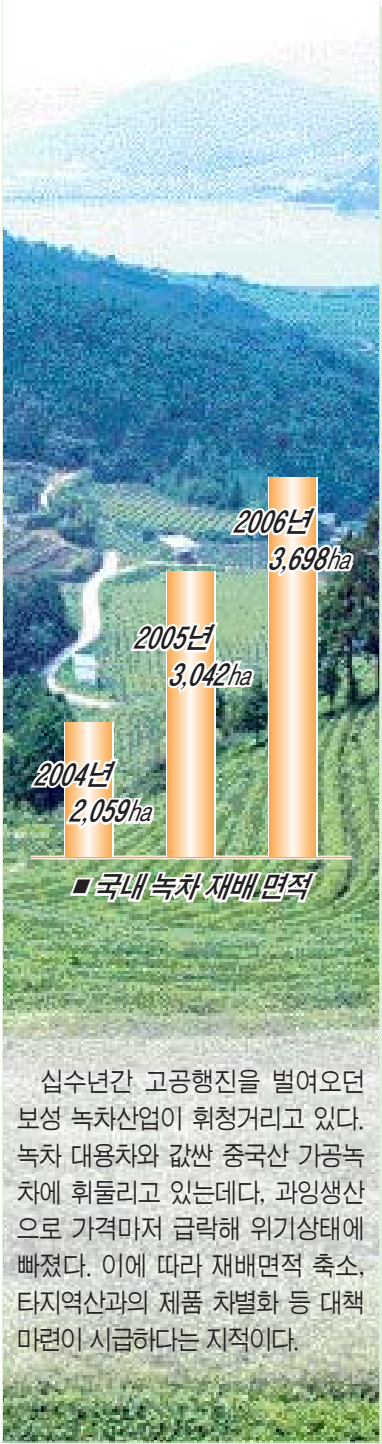
자는 "녹차 완제품은 500%가 넘는 관세 때문에 수입이 미미하다"며 "하지만 현미와 녹차를 섞어 가공용으로 수입하면 관세를 40%만 들면 돼 편법 수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품질고급화 등 차별화해야=임흥준(보성못재대원 대표)씨는 "품질고급화와 함께 재배면적 축소 등을 고려해야 할 때"라며 "정부차원에서 녹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씨는 또 "대기업 등 녹차 가공업체들이 국산원료를 외면하고 대부분 수입원료를 쓰고 있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현미녹차 편법수입을 차단하지 않을 경우 보성녹차의 어려움을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녹차 품질고급화와 차 가공원료의 집산기능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560명 규모의 녹차 가공공장을 보성읍에 건립 중이다.

/이중태기자 jilee@kwangju.co.kr



기아차 오토캠핑존 운영

기아자동차가 28일 강원도 고성군 봉수대 해수욕장에 오토캠핑존을 마련했다. 올해로 23회째를 맞는 기아 오토캠핑존은 화장실, 식수대, 샤워장 등 휴양 편의시설을 갖추고 고객 차량 정비를 위한 무상점검코너도 운영한다.

(기아차 광주점장 제공)

중소 대출금리 상승세 계속

년 6.63%..5월보다 0.03%p↑

중소기업 대출금리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양도성에급증서(CD) 금리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다른 대출금리는 모두 하락세를 보였지만 중소기업은 신용도가 낮은 업체에까지 대출을 확대하면서 중소기업 금리만 오르는 것으로 해석된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7년 6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중소기업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6.63%로 5월보다 0.03%포인트 상승, 2002년 4월(6.6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중기대출 금리는 5월에도 전월에 비해 0.11%포인트 급등했다. 한은 관계자는 "중기대출도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CD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CD 금리가 안정되면 함께 안정되기 마련이지만,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신용도 등이 낮은 기업에까지 대출 범위를 넓히다 보니 금리가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은행의 중기대출은 지난달 8조3천억원이 늘어 4월 7조9천억원, 5월 7조1천억원에 이어 가파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체 평균대출금리는 연 6.42%로 전월에 비해 0.06%포인트 하락했다.

대기업 대출금리의 경우, 5월에 특정업체가 고금리 대출이 있던 중소기업이 인수하면서 대출을 함께 떠안아 일시적으로 급등했던 요인이 사라지면서 5.87%로 0.24%포인트 하락했다.

/연합뉴스

채류기간 만료 외국인 근로자 재취업 가능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회(본부장 강영태)는 다음달부터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기간 3년이 만료된 이후 재고용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재취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우선 고용허가제 MOU를 체결한 중국·몽골·우즈베키스탄·베트남·필리핀·스리랑카·캄보디아·태국·인도네시아·파키스탄 등 10개국만 해당한다.

신청절차는 3년 취업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가 사용자 재고용을 희망할 경우 체류기간(3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재고용신청서를 작성, 신청해 재고용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면 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재고용확인서와 사증발급신청서를 소지하고 출국한 후 1개월이 지난 후 재입국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회 관계자는 "재취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중태기자 jilee@kwangju.co.kr

신기술 사업화 희망업체 모집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춘근)은 중소기업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6일까지 신기술사업화 디자인기술개발사업 희망업체를 신청받는다.

이 사업은 지방청이 지원할 기술개발 성공과제에 대해 디자인 개발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신기술 제품의 조기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된다.

이번 하반기 사업비는 15억원으로, 총 개발비의 75% 이내(최고 5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신청 및 접수는 광주·전남지방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gj-sm-ba.go.kr>)를 참조하면 된다.

/이중태기자 jilee@kwangju.co.kr

주택사업 토지수용 쉬워진다

오늘부터 민간-공공 공동사업제 시행

알박기, 매도거부 등으로 민간의 주택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공공 공동사업제가 3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업예정지 토지의 절반 이상을 확보한 민간 사업자는 공공기관에 공동사업을 제안할 수 있게 돼 주택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사업을 민간과 공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관보에 게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민간-공공 공동사업제는 민간이 일정 정도의 택지를 확보하고도 알박기·매도거부 등으로 인해 차질을 빚

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주택사업지의 면적이 도시지역은 1만㎡ 이상, 비도시지역은 3만㎡ 이상인 경우 가능하다.

단 도시지역에서도 3만㎡ 미만일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공동사업은 민간과 공공이 각각 제안할 수 있지만 민간이 제안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토지를 50% 이상 확보한 상태에서 가능하다. 공공이 제안할 경우에는 민간이 20% 이상의 토지만 확보한 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공동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 사업지의 30% 이상은 공공택지로 활용된다.

공동사업제와 별도로 택지개발사업을 한지 또는 혼용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환지방식은 토지를 수용하지 않고 학교,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에 편입되는 일부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그대로 갖는 제도이며 혼용방식은 환지방식과 수용(현금보상)을 함께 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에만 환지 및 혼용방식이 가능하다.

아울러 택지개발에 따라 토지를 수용당한 뒤 받은 보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에는 사업용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되며, 택지개발절차가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들어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실시계획과 공급승인이 각각 일원화된다.

/연합뉴스

혁신형 중소기업 신규보증액 1,495억 지원

기술보증기금 광주기술평가센터는 올 상반기에 호남지역에 공급한 신규 보증액이 1천495억원에 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벤처 및 이노비즈 등 기술혁신형 기업에 지원한 보증 규모는 신규 보증액의 96%인 1천44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27억원)보다 56%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벤처기업에 1천222억원, 이노비즈기업에 752억원의 신규 보증을 지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8%와 315% 증가했다. 또 기술창업기업에도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45% 증가한 651억원의 신규 보증액이 지원됐다.

이처럼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신규 보증 규모가 급증한 원인은 기술성과 사업성 위주의 '기술평가보증'과 재무성과 등 과거실적 위주의 '기술심사보증'으로 이원화 돼 있던 보증심사 체계를 기술평가보증으로 일원화 했기 때문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로템갤러리 신제품출시

로템갤러리

최고급 가구, 인테리어

특별기획상품행사

▶인테리어 30%~최고 50% 할인

로템갤러리 신제품출시

로템갤러리

KT 파워텔의 안전하고 신속·정확한 최첨단 콜시스템

CALL 매니저입니다.

무선기초, Bluetooth, GPS기능까지... 최첨단 파워텔스 이음통신 KT 파워텔

KT 파워텔 최첨단 콜시스템 이용문의번호

KT 파워텔 광주지점 662-526-0130